

농업의 변화와 혁신 농협이 이끈다

<4> 고품질 농작물 생산

‘농민이 잘 되어야 농협도 잘된다.’ 농협 전남본부가 ‘1농협 1대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다. 농협 전남본부는 지역 농·축협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지원하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 농작물을 통해 농민들의 농업 소득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광주일보는 농업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농협의 지원 활동, 희망찬 전남 농업·농촌의 미래를 모색한다.

전국 생산량 70%…연 200억원 소득

나주세지농협…멜론 생산량 증대

철저한 품질 관리 ‘세론이’ 명성
시설하우스 350개서 2888t 수확
공동출하·공동정산 경쟁력 확보

한 동 크기가 1322㎡(400평)인 시설하우스만 350개. 달라기를 해도 될 정도로 넓은 이 비닐하우스가 나주 세지농협이 자랑하는 ‘세론이’를 키워내는 곳이다. 세론이는 나주시 세지면에서 생산되는 멜론의 이름. ‘세지면의 멜론’을 줄인 브랜드명으로, 겨울철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지역 대표 고품질 특산물 멜론이다. 70개 농가가 연간 200억원에 육박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세지농협의 ‘1농협 1대표사업’이기도 하다. 멜론은 열대과일이다. 한 겨울에도 시설하우스 실내온도를 항상 24~25℃로 유지해야 한다. 그만큼 생산비가 많이 들어 쉽사리 재배해줬다며 나서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세지농협이 중앙회에 요청해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해 하우스에 보광등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한수 세지농협 전무는 “고온성 작물인 멜론은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기까지 통상 100일이 걸리는데, 기온이 높고 일조량도 풍부한 세지면은 1년에 세 번 수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지면이 국내 독보적인 멜론 고장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도 이같은 기후·재배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동절기에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해 겨울 멜론 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다.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세지농협을 통해 공동 선별 과정을 거쳐 출하·판매된 멜론은 모두 2888 t, 금액으로는 174억 5100만원 어치에 달했다. 직전 연도(2023년)에는 69개 농가가 193억 7900만원(3288t)에 이르는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올렸



세론이는 나주시 ‘세지면의 멜론’을 줄인 브랜드명으로, 지역 대표 고품질 특산물 멜론이다. 이은상 세지농협 조합장이 공동선별장에서 세론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다. 이 때 전남에서 유일하게 멜론공동선출회 대통령상(2023년)도 받았다. 가격 경쟁력도 갖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멜론보다 상자(5kg)당 5000원 더 높은 가격에 팔린다.

이은상 세지농협 조합장은 “‘세지 멜론’이라고 하면 상자만 보고도 안다”면서 “서울 가락동 공판장에서 중도매인들이 상자도 까보지 않고 그냥 가져갈 정도로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세지농협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철저한 품질 관리는 세론이 명성을 이어가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996년 멜론 재배를 시작한 2012년 GAP 인증(2012년)을 취득했고 당도가 13브릭

스(brix) 때 수확할 수 있도록 조합이 직접 관리한다. 멜론은 후숙성(後熟成) 과일이라 수확 후 며칠 지나면 당도가 높아진다.

농가별로 출하 시기를 지정해 흡수출하를 막는 한편, 공동출하·공동정산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 것도 세지농협이 공을 들인 대목이다. 멜론 공동선별장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멜론을 특상품·상품·보통으로 나누고 하늘색, 노란색, 흰색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도 마련했다.

세지농협은 올해 세론이 출하량을 늘려 농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점 농산물산지센터(APC)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상태로, 농협중앙회 지원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을 세워놓았다. 이은상 조합장 취임 뒤 학교급식으로 매를 공급망을 마련했고 혁신도시, 백화점 등으로 판매처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은상 세지농협 조합장은 “조합이 재배 기술을 보유한 농가들을 조직화하고 상품성을 갖춘 고품질 멜론을 생산하기 위한 품질 관리 등에 힘써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일반쌀보다 두 배 비싸도 매년 완판

곡성 석곡농협…백세미 판매 활성화

281개 농가 조합원들 계약 재배
유기농 약제 등 농협서 직접 관리
가공품 포함 2023년 매출 56억

‘사고 싶어도 쌀이 없어 살 수 없는 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쌀. 누룽지 향 나는 친환경 유기농 쌀.’ 대표적 장수 지역으로 꼽히는 곡성 이미지를 담은 백세미 얘기다. 백세미는 곡성 석곡농협이 지역 281개 농가 조합원들과 계약 재배하는 방식으로 생산, 판매하는 쌀로, 찰집·구수한 누룽지 향 등으로 특히까지 받은 지역 특화 고품질 쌀이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는 5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 2016년부터 재배를 시작해 일반 쌀보다 두 배 가량 비싼 가격(10kg 6만원)에도 매년 ‘완판’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쌀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전남 쌀로는 유일하다.

곡성 석곡농협의 ‘1농협 1대표사업’이 백세미 판매 활성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백세미가 친환경 유기농 쌀의 명성을 이어가는 건 석곡농협의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한몫을 하고 있다. 석곡농협은 백세미 재배면적을 219ha(2020년)→259ha(2020년)→272ha(2023년)→243ha(2024년)→258ha(2025년) 등으로 꾸준히 유지, 관리해나가고 있다.

한승준 석곡농협 조합장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이 직접 짓는 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한 뒤 백세미 재배 논임을 알리는 깃발을 제작, 꽂는 게 석곡농협의 한 해 농사 시작”이라고 말했다.

농사철이 시작되면 석곡농협 직원 50여명이 1



백세미는 석곡농협이 생산, 판매하는 전남을 대표하는 국가대표급 고품질 브랜드쌀이다. 한승준 석곡농협 조합장이 백세미를 들어보이고 있다.

대 1 방식으로 각자 맡은 논 면적에 맞춰 필요한 모판을 정확히 계산해 공급한다. 친환경 유기농 재배로 수확하는 쌀인 만큼 농협이 인정한 유기농 전용 약제만 지정, 사용토록 교육하고 관리한다. 이렇다보니 모내기철, 수확철이면 전 직원들이 논으로 나가 근무하는 게 일상이다. 지역 농가의 특성을 파악, 대응보다 소규모 농가를 우선 챙기는 점도 석곡농협의 노하우다.

잔소리하듯 농삿일 하나하나를 챙기면서도 공공비축미(수매가 특등급 6만 5600원·40kg 조곡)에 견줘 월등한 수매가(9만 2000원·40kg 조곡)로 사들이다보니 재배 농민도 품질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문화가 자리잡았다고 한다.

전남 쌀의 90%에 이르는 중만생종이 아닌, 조생종 쌀을 생산하는 점도 경쟁력을 높였고 차별화된 마케팅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3등 상품으로 자동차를 주는 대신 1등 상품으로 백세미를 지급(2020년)하는가 하면, 100만원 이상 일본

여행상품을 취소하는 국민에게 백세미 500포를 나눠주는(2019년)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전국에서 열리는 행사 뿐 아니라 산불·화재·수해 피해 지역에 찾아가 백세미 쌀·누룽지 등을 기부하는 일도 빼놓지 않는다.

석곡농협의 백세미 매출은 2019년 20억을 기록한 뒤 지난 2023년 53억을 돌파했다. 누룽지 등 가공품을 포함하면 56억원이 넘는다.

석곡농협은 농협 백세미 방앗간 한 칸에 마련한 누룽지 방앗간에서 백세미를 활용, 가마솥으로 만든 누룽지와 컵 누룽지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직원들이 직접 가마솥으로 하다보니 물량이 팔릴 정도다. 올해는 즉석밥을 출시하고 내년엔 30만 원짜리 초 프리미엄 쌀도 내놓을 계획이다.

한승준 석곡농협 조합장은 “농민들이 맘껏 생산한 쌀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민간 외교관 ‘광폭 행보’ 캐나다 토론토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주재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다양한 해소 방안 논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국제 사회를 누비며 대한민국 대표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30일 HS효성에 따르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지난 23일부터 26일(현지시간)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5 ABAC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의장을 맡고 있는 조 부회장은 회의에서 5개 분야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고 국제 통상 이슈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 증대가 아·태 지역 경제와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조 부회장은 다양한 의견을 모아 21개 회원국 통상 장관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도출했다. 조 부회장은 또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을 통한 ‘지속적 번영’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개선택 중 하나로 APEC 카드의 적용 대상과 범위 확대를 제안해 호응을 얻었다.

조 부회장은 이번 회의의 기간 개·폐막 의장단 회의와 메인 회의의 주재, 환영 만찬 등 주요 행사를 진행하며, 전 세계에 한국 경제의 위상을 알렸다. 특히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 한국의 아젠다를 알리고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각국 정·재계 리더들의 방한을 독려하는 등 ‘민간 외교관’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다.

글로벌 경제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조 부회장은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 지난해 12월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하고, 지난 2월에는 대미경제사절단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기도 했다.

조 부회장은 당시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하



조현상(왼쪽에서 두번째) HS효성 부회장이 지난 23일부터 26일(현지시간)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5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S효성 제공>

고 “한국은 미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미국 주요 기간산업의 공급망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우고 있다”며 “한미 간 무역수지 산정에 있어 투자로 인한 설비나 원재료 수입은 제외하고 서비스 분야 수지는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오는 7월과 10월 각각 베트남과 부산에서 열리는 ABAC 3·4차 회의에서도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조 부회장은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ABAC 의장 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이사과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비즈니스·민간 외교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난 29일 상의 4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제2차 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특화 훈련 사업 훈련 기관을 선정했다.

광주상의, 특화훈련사업 훈련기관 선정

16개 기관 26개 훈련과정 의결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광주인자위)는 “지난 29일 상의 4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제2차 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특화 훈련 사업 훈련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후형 광주인자위 사무처장과 노·사·민·정 실무위원 6인은 이날 “2025년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 훈련과정 승인(인)”을 상정하고 16개 기관에서 제안한 26개 훈련과정을 심의의결했다.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사업’은 산업 구조 변화 흐름에 대응해 지역별 상황에 맞는

훈련 과정을 공급하고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이다. 훈련생에게는 훈련비 전액과 과정에 따라 특별훈련수당 지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광주인자위는 올해 반도체, 데이터산업,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에너지, 메디헬스케어, 광융합·가전, 스마트 뿌리산업 등 광주시 9대 대표 산업을 육성하기로 논의했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에서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의 훈련·인력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구직자의 직무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화훈련사업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광주경총, 대선 공약 반영 요구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총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기 대선 공약에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업종·상황을 고려해 저금리 대출, 보증 지원, 채무 조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경총은 ▲맞춤형 금융 지원 강화 ▲디지털

전환·역량 강화 지원 ▲상권 활성화·특성화 지원 ▲배달앱·카드 등 과도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56.61 (-8.81)
↓ 코스닥	717.24 (-9.22)
↓ 금리 (국고채 39년)	2.267 (-0.043)
↓ 환율 (USD) <오후 4시 49분 기준>	1422.05 (-15.05)